

편집자 주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위해사범 조사를 위한 실험, 분석업무 및 실험검사의 신뢰성 보증을 위한 실험 및 기술을 지원하며, 365일 국민의 식품의약품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부서이다. 우수한 기술로 성과를 내고 있는 첨단분석팀의 맹활약 에피소드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불법유통 발기부전치료제 꼼짝마!

글 첨단분석팀 그림 이철원

지난 2010년 오송으로 이전하기 위해 열심히 짐을 꾸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팀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연구관님 긴급하게 의뢰할 제품이 있어요. 바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까지 분석 결과가 통보되어야만 위해사범이 도망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단다. 그러나 이미 오송 이전을 위해 장비를 모두 해체한 상태. 긴급상황이기에 급한대로 경인청으로 연락해 장비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담당자를 경인



청으로 보낼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는 11종의 제품을 수거해 급히 들어섰다. 가져온 제품은 비아그라 제품 4종과 시알리스 7종. 진위 여부를 판단할 홀로그램, 모양, 색상 등을 확인해 보니 정품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매우 유사했다.

담당자는 제품을 들고 바로 경인청으로 출발하여 분석에 착수했다. 1차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33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크리닝을 하는데….

“연구관님 아무래도 오늘 밤을 새야 할 것 같아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동일한 성분이 나타났어요. 정량까지 하려면…”

비아그라는 실데라필이 주성분이고 시알리스는 타다라필인데, 수거한 시알리스라 찍힌 제품도 주성분이 실데라필이라는 결과를 통보하고, 그 간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국제 자동포장기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중국에서 몰래 들여 온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포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인쇄 제작한 종이박스와 플라스틱 용기에 가짜 알약을 담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방지 홀로그램까지 부착했던 것.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식약

처 수사관들이 첩보영화를 무색케 할 정도의 변장술로 장시간 감시를 통해 범행 현장을 기습,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 밤새 분석을 진행한 담당자가 결과를 알려왔다.

“모두 실데라필로 정품 표시사항보다 최대 2배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결과는 경인청에서 원격으로 보내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제품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실데라필을 확인하고 그 양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밤새 마음을 졸이며 몇 번씩 반복분석을 했을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우리가 처리한 이 날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된 위조약품 수량만 해도 20만 정, 의약품 블리스터(PITP) 포장용 자동포장기기까지 갖추고 위조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 현장을 처음으로 적발한 큰 성과였다.

이같이 치밀하게 준비된 불법행위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던 건, 수사단과 실험부서가 하나의 팀워크로 적발에서 구속까지 한 몸처럼 신속히 움직여 얻은 결과다. 우리의 노력이 이 같은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식약처의 한 사람으로서 짜릿함과 보람을 느낀다.